

까치수영



정연권
구례군농촌지도소

까치수영(*Lysimachia barystachys* BUNGE)은 앵초과에 속하는 숙근성 다년초로 까치수염, 낭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백운산이 포옹하듯 만나는 자리에 근엄한 할아버지나 신선의 흰 수염을 떠올리게 하는 긴 꽃대를 가진 자생화다.

약간 습지에서 자생하는데 초장이 50~100cm이다.

사진1. 까치수영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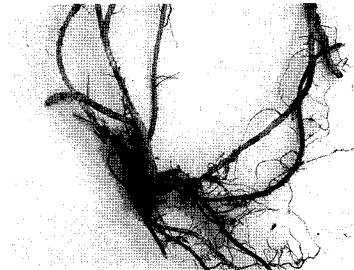
형태 및 특성

꽃은 흰색으로 6~8월에 핀다(사진1). 지름 7~12mm로서 원줄기 끝에 꼬리처럼 옆으로 굽은 화서가 달리고 꽃이 밀착하여 길이가 30cm정도 된다. 뿌리는 지하경으로 강하게 번어간다(사진2). 색깔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끝에서 새순이 올라온다. 원줄기 밑부분에 붉은 빛이 돈다.

자방은 1개이고 삭과는 윤기가 있고 둥글며 지름 2.5mm 정도의 적갈색이다(사진3). 채취적기는 10월하순경이며 손으로 봉오리를 따서 10여일 정도 음건한 후 건조보관 한다.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사종인 큰까치수염은 이뇨, 소종,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어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 생약명으로 진주채(珍珠菜)라고 한다.

사진2. 까치수영 뿌리



번식방법

실생 사진3과 같이 채취하여 보관한 종자를 4월상순경에 파종한다. 파종용토는 발흙 또는 논흙 5:부엽 3: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한다. 파종상자에 용토를 5cm정도 넣은 후 상면을 고르고 산파하거나 3cm정도로 조파한다. 물을 충분히 주고 신문지로 덮어둔다. 신문지가 마르면 다시 물을 주도록 한다. 발아 되면 신문지를 걷고 매일 10시경에 관수하는 것이 좋다. 발아에는 25~30일 정도가 소요되고 발아율은 약 60% 정도이다. 발아 후 30일 정도 지나 사진4처럼 본엽이 2매정도 될때 16공연결 포트에 가식하여 본엽 5~6매까지 육묘한다.

삼목 새순이 올라와 약간 굳을 때인 4월 하순~5월 상순경이 적기이다. 삽수길이는 7~10

사진3. 까치수영 종자



cm가 적당하며 큰 잎은 2/3정도 절단하여 잎을 3~4매 붙여서 깨끗한 모래에 4×5cm 간격으로 꽂는다. 관수한 후 30% 차광망을 설치하고 상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30~40일 후 약 90%정도 발근한다(사진5).

분주 뿌리가 강하게 옆으로 번는 성질이 있으므로 분주량이 많은 편이다. 3월 하순~4월 상순에 새순이 지면 위로 약간 보이기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굴취하여 꽃가위로 새 눈에서 뿌리가 7~10cm정도 남게하여 잘라서 심는다.

절화재배

꽃 가격이 낮은 6~8월에 피고 수송하기가 불편하며 절화수명도 7~8일 정도여서 절화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꽃이 특이하고 향기가 좋으며 수량도 많은 편이므로 도시근교에서 소량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재배적지는 배수가 잘 되면서 약간 습기가 있고 비옥한 토양이다. 10a당 퇴비 1,500kg 이상, 18-18-18 복비 20kg 정도를 시비한 후 잘 경운하여 90cm의 두둑을 만든다. 심는 간격은 30×30cm(3조식)로 하는데 10a당 5,400본이 필요하다.

줄기가 연약해 쓰러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지상 20cm

까치수영 유사종의 특징

유사종	개화기	주요 특징
큰 까치수영	6~8	양지 자생, 초장 50~100cm, 잎긴 편원상
진퍼리카치수영	7~8	습지 자생, 초장 40~70cm, 잎피침형
물까치수영	6	물가 자생, 초장 40~60cm, 잎좁음
섬까치수영	6~7	제주도 습지 자생, 초장 30~60cm
홍도까치수영	8	홍도 풀밭 자생, 초장 30~80cm
갯까치수영	7~8	바닷가 자생, 2년초, 초장 10~4cm

높이에 1단, 50cm에 2단을 설치한다. 시기는 1단이 5월 상순, 2단은 하순경에 15×15cm 네트망을 사용토록 한다.

관수는 점적관수를 설치하는 것이 노동력과 경비를 줄일 수 있으나 이랑에 관수하는 방법이 오히려 생육이 좋았다. 절화는 밑에 꽃이 2~3단 피기 시작하면 40~50cm 길이로 잘라서 10분을 1속으로 묶어 출하한다.

화단재배 및 분화재배

까치수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화단재배를 권하고 싶다. 정원에 집단으로 심어 놓으면 흰색의 꽃이 굵어서 피는 특이함과 정겨움, 그리고 반가움을 맛볼 수 있다. 다비성이지만

과비시 잎과 키가 너무나 무성하여 관상가치가 떨어지므로 완속 퇴비나 비점스를 평당 3kg정도만 주고 경운 후 심는다. 심는 간격은 30×30cm가 적당하고 심은 후 멀칭토록 한다. 정원에 네트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5월 중순경에 녹색 코팅지주를 설치하면 쓰러지지 않아서 관상하기 좋다.

분화재배는 키가 크고 뿌리가 번는 성질 때문에 큰 화분을 사용해야 한다. 꽃상자에 심어서 관리하면 좋다. 용토는 발효 4:부엽 3:모래 3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고 비료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성하지 않아서 좋다.

관수는 적당히 하여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역시 코팅지주를 사용한다. 기타 관리는 절화나 화단재배에 준한다. **농약정보**

사진4. 가식적기묘



사진5. 삼목 발근한 묘

